



윤석열은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인가? 윤석열이 노동자 등 광범한 대중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친제국주의적 호전성을 드러내는데도?

온건 좌파 일각에서도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쓴 바 있다.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은 ... 기득권 정당들[국민의힘과 민주당 - 인용자]이 기존의 도그마를 수정하지 않고, 오직 좁은 의미의 정치진영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내로남불 현상이 그 첫째요, 상대를 악마화하고 우리를 천사화해서 악마대단결과 천사대연합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아집과 독단이 그 둘째다. 이런 병적 징후들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스스로 믿지만 어떤 새로운 세력 구상도 내지 못하고 비판의 무기만 쓰아대는 진보좌파 세력의 무능이 그 셋째 정도는 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2022년 12월 2일자)

위에서 보듯이, 정의당 내 '전환'계는 한국 정치의 상대편 악마화 행태가 양당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강화해, 정의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듯하다. '전환'계 친화적인 매체 <레디앙>은 한때 좌파였지만 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악마화"를 비



판해 온 한지원 씨의 칼럼을 읽고 있다.

지난해 이은주 당시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광주 학살 세력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 정치"라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했었다. "경쟁하는 정당과 지지자는 악마의 후예가 아니라 ... 동료 시민입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명시적으로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세 번의 집권 내내 그런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 때와 상황의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 지금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에게는 국가의 일상 집행부를 운영하며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을 시작한 윤석열이 악랄하고 잔

인하고 비인간적인 지도자이다.

윤석열은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이 절실한 기업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 대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이미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에 말이다. 그래 놓고는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 취급한다.

그러니 화물연대 파업 때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윤석열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면서 울

분을 터뜨릴 만도 했다.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 것은 국가를 중립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적을 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윤석열에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선물하는 장면은 고통 받는 대중의 눈에 불췌사나왔다.

도대체 정의당은 누구 편인가? 고통 받는 가운데 저항하고자 하는 일부의 지지를 받고는 싶은 건가? 아니면, 방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흠지쟁 속에서 어부지리나 얻고자 뒤편 잡고 기회나 보는 그 유명한 “극단적 중도”가 되고자 하는가?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누구를 대변하려 하는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광범하고, 이런 정서의 일부가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 것은 정의당과 ‘전환계’가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한테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지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60퍼센트에 육박하는데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악마화’해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면서 대안적 세력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코너에 몰렸던 윤석열의 숨통을 틔워주는 구실을 했다. 또, 민주당은 현행 안전운임제 유지라도 얻어 내자며 화물연대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의당 지도부는 몇몇 문제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에서 — 민주당이 배신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것,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로 지엽말단에 사법적 책임 물으며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흐려 버린 것 — 민주당과 공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서려면 윤석열 퇴진 투쟁과 생계비 저항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윤석열 ‘악마화’ 문제삼기는 그런 과제 수행을 방해한다. 윤석열 악마화에 대한 비판에는 이런 좌파적 취지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판할 때도 윤석열 ‘악마화’ 또는 윤석열 퇴진 주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자기 제약이 작용해서 급진성도 제약 받는다.

결국 국회가 소모적인 갈등(정쟁)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민생’ 위기를 해결 하자는 식의 협치론 비슷한 주장으로 기울기 십상이다.

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려 온 그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고 사용자들에 맞섰다. 이게 기득권인가?

임금 개악 반대가 기득권이라는 것도 억지다.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 개편은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사용자들이 2000년대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이 사용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세력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윤석열 신년사를 비판하며 던진 반문에 공감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판에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더 넓은, 진정한 기득권 세력이 빠져 있다.

윤석열의 핵심 관심사는 경제 침체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 연금 등 노동자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기업인과 사용자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들의 지지를 구하기 때문이다.

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이 강조한 직무급제 개악을 추진했었다.(관련 기사: 본지 260호, ‘문재인 정



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그래서 민주당의 ‘3대 개혁’ 비판은 “국민적 합의” 없는 “불통” 방식 비판에 치중돼 있다. 민주당의 반쪽 비판과 달리, 노동자 등 서민층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에도 민주당은 반대해야 했다.(민주당뿐 아니라 안타깝게 정의당도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다.)

친제국주의

윤석열은 또한 신년사에서 “북한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할 대책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경제적 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가치” 연대는 지난 12월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친제국주의 정책이다.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미국-일본과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옳게 반문했다.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한국 경제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그런 모순 속에서 윤석열도 앞뒤 다른 말들을 한다.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 노선 강화를 표방하는데,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동아시아 군사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수출 대책으로 제시한 원전·방산 수출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특수를 누리려 보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43호,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전쟁의 확산 위험에 일조하는 것이다.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이 윤석열의 전방위적 개악에 맞서려면 민주당과 달리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개악 반대 목소리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orker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TV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1월 11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참가신청 bit.ly/0111-meeting

-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